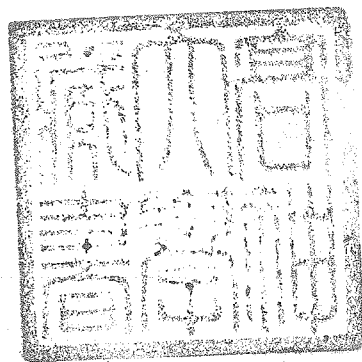


27  
51.85  
897

1987學年度  
碩士學位 請求論文

宗教改革者들이  
資本主義 發展에 미친 影響




02894

總神大學 神學大學院

神學科 歷史神學專攻

李 基 勳

 고신대학교



DM00001623

1607

宗教改革자들이  
資本主義 發展에 미친 影響

指導教授 洪 致 模

이 論文을 碩士學位 (M.Div)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1988年 2月 日

總神大學 神學大學院

神學科歷史神學專攻

李 基 勳

李基勳의 神學碩士 (M.Div) 學位 請求論文을 認准 함

審查委員 \_\_\_\_\_ (印)

審查委員 \_\_\_\_\_ (印)

審查委員 \_\_\_\_\_ (印)

1988年 2月 日

總神大學 神學大學院

## 목 차

I. 서 론 .....	2
II. 16세기초 유럽의 사회적 상황 .....	6
1. 경제적 상황 .....	7
2. 교회의 상황 .....	18
III. 종교개혁자들의 경제관 .....	27
1. Martin Luther의 경제관.....	27
2. John Calvin의 경제관.....	37
IV. 칼빈주의와 자본주의 .....	51
V. 결 론 .....	59
참고문헌 .....	61

## I. 서론

宗教改革이 발생한 16세기는 그 시대의 양상으로 보아 激變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기를 가리켜 중세에서 근세로 이행하는 역사적 전환점(Historical turning point)이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었다.<sup>1)</sup> 이러한 때에 Roman Catholic 교회의 세력과 투항하여 그 두꺼운 중세의 검은 장막을 찢고 근세의 광장으로 세계의 역사를 인도한 것이 곧 無名의 修士神父였던 Martin Luther가 일으킨 宗教改革이다.

그러나 Martin Luther로 부터 시작되어 Calvin에 의하여 완성된 종교개혁운동은 단순히 종교개혁 운동에만 머물은 사건이 아니었고, 중세 카톨릭 문명권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 사상등의 기반을 흔들 어 놓은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세 카톨릭 교회가 종교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에까지 깊이 관여하였고, 따라서 교회는 세속의 온갖 문제와 유기적으로 밀착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기에 카톨릭 교회가 그 권위에 도전을 받고 또 그 제도가 붕괴되었을 때 그것은 단지 교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밀착해 있었던 서구 중세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宗教改革으로 말미암아 중세 서구 문명의 온갖 국면이 붕괴 또는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16세기의 宗教改革은 단순한 宗教

---

1) 홍치모, 「宗教改革史」(서울:성광문화사, 1979), p.49.

改革 운동으로만 이해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는 실로 종교, 정치, 경제, 문화등의 광범위한 문제들이 얽혀서 된 복잡한 운동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2)</sup> 이런 의미에서 M. Luther 로 부터 시작된 宗教改革은 실로 코페르니쿠스적인 革命 (Copernican Revolution)<sup>3)</sup> 이었으며, 또한 기독교 内部改革뿐만 아니라 근대사회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19세기의 역사학자 제임스 프로우드 (James Froude)는 “종교개혁이야말로 모든 현대사가 중심으로 회전하는 돌쩌귀와 같다”고 까지 평가하였다. 우리는 제임스 프로우드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현대 유럽을 형성하는 데 미친 종교개혁의 결정적 영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sup>4)</sup>

이처럼 宗教改革은 종교, 정치, 경제, 문화등의 광범위한 문제들이 얽혀서 된 복잡한 운동으로 이해되어지는 데, 상업의 부활과 도시의 발생과 화폐경제의 대두로 붕괴의 길을 걷고 있었던 중세 대건체제에 宗教改革이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초기 資本主義 형성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일부 학자들은 종교개혁, 그 중에서도 특히 칼빈파의 개혁은 資本

2) 지인성, “16세기 종교개혁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한신대학 대학원, 1983), pp.1-2.

3) 그 이유는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중심적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이 物界의 태양중심적 개념에 도달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자들도 인간중심적 즉 지구중심적 종교관념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마침내 하나님 중심적인 개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P.S Watson, *Let god be god* (이장식 역, 프로테스탄트 신앙원리, 컨콜디아사, 1962), p.67-68.

4) Lewis W. Spitz, *The Reformation* 서영일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p.16.

主義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sup>5)</sup>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자본주의가 종교개혁보다도 훨씬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을 야기하는 데는 종교개혁보다도 다른 요인들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도 한다.<sup>6)</sup>

과연 종교개혁자들은 근대 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일까? 만약 종교개혁자들이 근대 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종교개혁은 종교, 정치, 경제, 문화등의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한데, 이 중에서 경제에 미친 영향 즉, 자본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즉 16세기 유럽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게 될 것이다. 유럽의 사회적 상황을 언급하면서 資本主義가 어떻게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유럽의 사회적 상황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資本主義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살

---

5) 이들 학자들 중에는 Max Weber, Ernst Troeltsch, R. H. Tawney 등을 들 수 있다. Max Weber는 칼빈주의 이론적인 측면이 資本主義 성장에 지대하게 공헌하였다는 논지를 폈고, Ernst Troeltsch와 R. H. Tawney는 M. Weber의 기본적인 전제들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수정을 가했다.

(W Stanford Reid, "John Calvin: the father of capitalism?" (themelios, 1983. 1월), p.20.

6) 이들 학자들 중 대표적인 학자는 독일의 F. Rachfall을 들 수 있겠다.

Robert W. Green,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Boston; D. C. Heath and Company, 1959), p.viii.

펴보게 될 것이다. 많은 宗教改革者들 중에서 宗教改革의 대표적 인물인 M. Luther 와 John Calvin 의 경제관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資本主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 특히 칼빈주의가 현대 資本主義의 생성과 발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모든 論議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II. 16세기초 유럽의 사회적 상황

1500년대 유럽에는 6천5백만 내지 8천만의 인구가 자리잡고 있었으며, 약 60명 이상의 왕들, 왕자들, 대주교들 기타 통치자들이 주요한 권력을 장악하여 이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데 資本主義 발생, 이와 함께 부상한 부르조아 집단, 인쇄술, 광업, 조선업, 기타 산업들을 일신시킨 새로운 기술의 개발, 이 산업들을 유지해 나가는 새로운 노동계급 등의 새로이 등장한 사회적 추진력들과 도시의 성장 등에 따라 권력과 그 의존관계가 변화하고 있었다.<sup>7)</sup> 하층 귀족 계급들 가운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위치를 상실하고 한편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종래에 중세 봉건제도에 완전하게 적응하고 있던 교회는—예를 들어 어떤 주교들은 실제로 봉건 영주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가 가진 기존체제 및 교황청의 요구에 순응하기 위하여 발전해온 행정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수단들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교황들이 갈려졌던 아비뇽 사태 이후 르네상스 시대를 통하여 교황들이 계속 자기들의 금전적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노력을 기울이다보니, 교회는 탐욕의 화신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그 특권과 도덕적 영향은 상실되었으며, 도덕가들, 인문주의자들, 개혁가들은 이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

---

7) Lewis W. Spitz, *op.cit.*, p.26. 이 문제에 대해서는 16세기 유럽의 경제적 배경에서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었다.<sup>8)</sup>

## 1. 경제적 상황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宗教改革을 일으킬 당시 유럽의 경제적 상황은 중세 봉건제도 하에서 그 명맥을 유지해 오던 장원경제가 몰락하고 새로 대두한 신흥 商業資本主義가 그 위력을 과시하기 시작하던 때였다.<sup>9)</sup> 우리가 宗教改革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 유럽의 경제구조와 그 변천과정을 이해해야만 한다.

중세의 경제구조는 크게 이질적인 두개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 하나는 중세 전기에 지배적인 莊園經濟였고, 다른 하나는 중세 후기를 특징짓는 도시경제였다.<sup>10)</sup>

장원경제는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장원을 단위로 한 폐쇄적인 자금자족 경제체제였으며, 이것은 영주의 경제적 관심에서 영위되고 있었다.<sup>11)</sup> 즉, 장원경제는 장원을 기반으로 하는 대토소유자인 領主와 봉건농민과의 대립관계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여기서 장원이라 함

---

8) *Ibid*, p.26.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세 유럽의 교회 상황에서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9) 흥치모, *op.cit.* p.52.

10) 여기서 말하는 중세 전기는 12C까지를 말하고, 중세 후기는 13세기 이후 산업혁명까지를 말한다.

11) 조기준, 사회경제사(서울:일신사, 1987), p.139.

12) 장원이 봉건적 대토소유로서 다른 형태의 대토소유와 구별되는 이유는 농노적 농민의 생산노동에 의하여 경영되는 데 있다.

최문환외, 경제사(서울:박영사, 1980), pp.96-97.

은 영어의 manor 와 같이 구체적인 소유지를 지칭하기도 하고 독일어의 Grundherrschaft 와 같이 분산되어 있는 大小所領 전체에 대한 지배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나, 요컨대 장원이란 주민을 포함하여 영주권에 포함된 대토지 즉 봉건화한 촌락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장원은 영주권의 지배하에 있는 대토지로서 영주경제의 수입 원천인 동시에 촌락농민의 생활기반이었고, 따라서 같은 한 토지위에 영주권과 농민의 용익권이 서로 대립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장원경제는 영주의 경제기구인 동시에 농민의 경제기구라는 2중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sup>13)</sup> 장원제도하에서 농민들은 봉건적 토지 영토의 지배하에 농노와 다름없는 신분으로 예속되어 있었고, 영주로부터 약간의 토지를 대여받는 댓가로 각종 봉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실례를 들면 농민들은 매주 2-3일은 영주의 직영지에 가서 무상으로 노동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영주의 허가없이 장원을 이탈하거나 결혼도 할 수 없었다. 영주는 장원내에서 사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민요에서 농민들을 가리키며 「빨없는 소」라고 부를 정도였다.<sup>14)</sup>

그러나 중세 전기의 장원경제 체제하에서 영주의 생활은 호화스럽고 전쟁과 사냥 향락과 도박을 일삼는 한가한 생활로 인해 지출이 수입보다 항상 더 많은 생활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손실을 매우기 위하여 농민들을 착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은 세속의 영

13) *Ibid.*, p.100-111.

14) 홍치모, *op.cit.*, p.52.

주 뿐만 아니라, 성직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sup>15)</sup>

중세 후기부터는 이와 같은 장원 내부에서 이질적인 경제질서가 나타나는데, 중세 후기의 도시경제가 그것이다. 도시는 장원내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장원질서와는 대립되는 것으로 도시민족은 장원적 질서를 이탈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였다. 도시주민들은 그 대부분이 상인 및 수공업자로 구성되었으며 이것은 장원이 주로 농민으로 형성된 것과는 다른 점이다. 따라서 장원경제가 농업을 주로 하고 공업품 수요는 대체로 농민의 부업노동에 의거하고 있는 자급자족적 폐쇄적인 경제단위였음에 비하여 도시에서는 생산특화가 일어나고 수공업자 및 상인계급이 발생하였으며, 여기에서는 교환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시의 융성은 광대한 경제영역을 일환으로 하는 교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필연적으로 중세 초기의 자연경제(농업경제)를 교환경제로 몰아 넣고 장원을 단위로 하는 자족적 폐쇄경제를 획적으로 단절하고 분해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물론 발생 당시의 도시는 아직 충분히 도시적 양상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농촌적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다. 즉 초기에는 생산특화와 충분히 일어나지는 못하였고 도시 주민에는 농민도 많았으며 또 수공업자, 상인들도 한편으로는 농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년수가 경과함에 따라서 도시도 점차로 그 본래의 양상을 갖추었고 따라서 기술적 특화도 어느정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도시경제는 장원

---

15) W. Sombart, Der Moderne Kapitalismus Vol. I. S.32ff(재인용)

영주들은 지대외에도 도로통행세, 하천세, 교량세, 인두세, 국세, 교회의 10분의 1세, 결혼세, 사망세 등 갖은 착취를 가했다.

경제를 주로 하는 중세 초기의 경제질서와는 대립되는 것으로 이를 분해하고 근대적인 교환경제로 인도하는 교량이 되었던 것이다.<sup>16)</sup>

중세도시는 당초에 상인들의 定住를 바탕으로 하고 인근 농촌지대로부터 수공업자를 흡수하여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상인과 수공업자들 사이에는 차츰 동직자들끼리의 길드(Guild)<sup>17)</sup>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자기계급을 보호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결속하게 된다. 상인들은 내부에 대해서는 각종 규약을 설정하고 상인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영업시간, 영업종목, 가격 등에 대한 단속 규약을 만들고 또 상호간의 이익을 방해하는 경쟁을 배제하려고 했다. 이들 상인길드(guild of merchant)를 조직한 상인들은 이 길드조직을 통하여 도시자치권의 획득에 노력하였고, 실제로 상인길드가 주체가 되어서 실제로 이를 운영하기도 하였다.<sup>18)</sup> 도시의 상인들이 길드를 조직하고 각종 특권을 향유했으며 도시자치권까지 장악했다고 한다면 도시의 다른 주민이 이에 반항하려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이 반항의 선두에 나타난 것은 도시에서 상인과 함께 발달한 수공업자들이었다. 도시수공업자들은 동직자의 이해관심에서 동직자끼리 일정한 장소에 집거하였으며 여기서 그들은 한 동직자조합(Craft man guild, Zunft)을 결성하였고, 그들은 이 동직자조합을 통하여 상인길드의 특권에 대항하게 되었다.<sup>19)</sup>

---

16) 조기준, *op.cit.*, pp.146-147.

17) 길드(guild)란 말은 통설에 의하면 본래는 공동기금의 출연 또는 공동주연을 의미하였는데 그러한 공동행위를 하는 결의단체도 길드라고 불리게 되었다. 최문환외, *op.cit.*, p.129.

18) 조기준, *op.cit.*, pp.209-210.

19) *Ibid.*, pp.211-212.

상인길드와 *Zunft* 길드가 존재하는 도시에는 여러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각종 인군이 혼집하고 있었다. 권력적 근거에서 주변 농민의 租稅로 생활하는 왕, 또는 그의 代官, 토지 소유에 기하여 지대를 수취하는 종교적 및 세속적 영주, 그들로부터 생활자료를 부양받는 군인, 관리, 예속적 공업자, 타지에서 이주해 와서 시민이 된 자유로운 상인 및 수공업자 등 초기의 도시에서는 이 주민 사이에서 아직도 신분적 차별이 있었으나, 도시가 도시로서의 양상을 충분히 갖추어 이르러서는 이들의 신분적 차별은 점차 없어지고 시민이라는 하나의 계층을 이루어 도시에 정주하여 좌상이 되었으며 농촌으로 부터 장원질서를 물리치고 도시에 유입한 다수 농민은 도시 시민으로서의 상업 또는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일정한 세금을 도시영주에게 지불함으로써 자유로 상업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도시영주와는 하등의 신분적 예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영주의 예속공인도 점차로 영주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판매를 위한 자유로운 수공업자가 될 수도 있었다. 예속공인의 자유수공업자로의 전하는 영주 자신에게도 유리했다. 영주는 공인의 제작물을 수납하기보다도 화폐를 수납하여 시장에서 자유로 자기 뜻에 맞는 것을 매입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sup>20)</sup>

도시의 발생과 수공업의 발달함에 따라 상업이 점차 활기를 띠게 되면서 영주 또는 小地主層도 토지소유에 기한 수납만으로는 점차 증대하여 가고 있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또 도시를 지배하는 새로운 경제관심에 따라 그들 자신이 상인이 되는 자도 속출하

---

20) *Ibid.*, pp.204-205.

였다. 이리하여 도시에는 교환이라는 특수한 경제관심이 충만되었으며, 이것은 일정한 貨幣納付를 매개로 일체의 신분관계를 해체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봉건영주와 소지주층의 貨幣의 필요성에 의하여 농민들은 지금까지 現物로 上納하던 지대를 화폐로 지불하게 되었고, 15, 16 세기에 이르러서는 농민들의 생활이 현저하게 향상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농민의 신분은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봉건적 제약을 받고 있었지만, 영주에게 地代를 화폐로 상납하기만 하면 족하였고, 영주의 허가 없이 결혼과 이혼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농민에게 있어서 다행했던 것은 영주에게 바치던 노동(Boon Work)이 일정한 양의 곡물 내지 화폐를 지불함으로써 면제되었는데 이것은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증진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지위는 대체적으로 종교개혁기까지 향상 一路에 있었다.<sup>21)</sup> 농민들은 여전히 신분상의 제약을 받고 있었지만, 생산의욕의 증가로 말미암아 잉여생산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계기로 농민들의 구매력은 점차 증가하고 시장은 점점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화폐지대의 출현은 농민들로 하여금 토지나 생산물 자체에 대해서보다도 생산물을 판매하여 가급적으로 많은 화폐량을 획득하는 일에 치중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중세의 農奴는 종래와 같이 노동력 공급

---

21)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민들의 경제적 지위는 향상되었다. 과거 마르크스주의 史家들은 이 무렵의 경제 상태와 농민의 지위를 절망적으로 고찰했었지만, 최근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 지역적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의 발생과 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상업이 점차 활기를 띠게 되면서 농민들의 생활로 현저하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흥치모, *op.cit.*, pp.52-53.

의 모체로서의 성질을 따라서 일정한 화폐지대에 의해서만 구속당하게 되었으며 또 이같은 사실은 농노와 영주와의 신분적 결합을 약화하여 일종의 「계약」으로서의 소작관계로서 간주하는 경향을 조성케 했다. 그리하여 지방의 농민들은 이미 13세기 이래로 점차로 약간의 토지를 소유한 자유민으로 되었고 토지재산의 자유스러운 賣買와 相續이 허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의 자유화 현상이진전이 있는 반면에 商業資本 乃至高利貸資本이 농촌으로 들어와서 토지의 零細自作農化를 초래하게 되었다.<sup>22)</sup>

이러한 농민의 자유화 현상으로 15-16세기의 영국농민의 대부분은 사실상 봉건지대로부터 해방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농민들 가운데서도 상층부분은 일층 자유롭고 부유했는데, 이들은 소위 중산적 생산자층(yeomanry)을 형성하여 갔던 것이다. 그리고 「금납화」 이래로 농민의 토지 매매 및 대차등이 더욱 빈번히 행해짐으로써 농민들 간에 토지투기(land speculation)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토지시장(land market)이 성립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사정에 매개되어 가면서 농민층의 분해는 급속화되어 갔다. 농민층의 상층부분은 15세기에 직영지의 일부를 차지소작해 가면서 재산을 모았으며 농촌에서의 부속한 중산층으로 성장해 간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직접생산자, 즉 농민층은 산업자본가(차지농업가)와 임금노동자(농업 임금노동자)에로 양극적인 분해를 겪으면서 이에 따라 근대적인 토지소유형태가 형성되어 간다.<sup>23)</sup>

한편, 상업과 수공업이 발흥함에 따라 도시는 계속 발전하게 되었

---

22) 최문환외, *op.cit.*, pp.142-144.

23) *Ibid.*, p.155.



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에는 먼저 상인계급이 길드를 조직하였는데, 이들은 가입금과 토지를 소유하는 자로 構成되어 商業의 獨占과 他都市와의 通商의 特權을 가졌고, 營業上의 경찰권과 사법권까지 가져서 都市의 행정기관을 점차 그들의 手中에 넣었다. 이러한 상인길드에 저항하여 도시 수공업자들이 동직자 조합(Craft-guild, Zunft)을 결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그리하여 수공업자들은 상인길드와는 별개로 조합을 조직하여 상인의 都市權에 저항하였다. 라인강 연안의 제도시(諸都市) 및 북부 독일의 한자(Hanza) 도시에 있어서의 길드 투쟁이 역사상 유명한 예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의 길드 투쟁에서는 商人의 勢力이 우세한 듯 했으나 手工業의 勃興과 그 결속은 점차 기세를 올려 14, 15세기경에 이르러서는 수공업 조합이 商人階級보다 더 우세해져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공업자길드가 都市自治權을 획득하게 된 경우를 Max Weber는 貴族都市(Patrizierstadt)에 대하여 平民都市(Bürgerstadt)라고 불렀다.<sup>24)</sup> 그러나 쾰프트길드는 新航路開拓과 商業革命으로 말미암아 民需의 범위에 변동이 생기면서 자연 분해하고 새로운 工業組織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5세기의 商業革命<sup>25)</sup>은 都市 및 농촌의 交換經濟를 촉진하고 이로써 民需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또 신개척지로부터의 공업품 수요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확대된 需期는 종래의 수공업 조직으로서는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

24) 조기준, *op.cit.*, pp.211-215.

25) C. Columbus의 아메리카 發見(1492)과 Vasco da Gama의 東印度航路의 開拓(1498)이란 地理上의 二大發見서 依하여 유럽 諸國民의 商業活動에 새로운 變革을 일으켰는데 이를 가리켜서 商業革命이라 한다.

며, 결국 매뉴팩처 (Manufacture)<sup>26)</sup> 공장제가 발전하면서 쥘프트는 쇠퇴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새로운 사태에 대응하여 나갈 하등의 조건 갖추지 못했던 쥘프트는 분해의 과정을 밟게 된 것이다.<sup>27)</sup>

그런데 엘베 (Elbe) 강 以東의 東部 獨逸에 있어서는 12.3世紀에 나타났던 農民의 自由化現象은 15.6世紀를 고비로 하여 再次 不自由化되어 갔으며 農民은 마치 영주의 직영경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이世上에 태어난 存在 같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轉換을 가져오는 과정은 大略 다음과 같다. 東獨의 領主 (Gutsherr)는 처음부터 商業的 傾向에 물들어 있었고 곡물은 한자 (Hansa) 諸都市의 重要한 수출품이었다. 즉 「領地經濟」의 體制가 싹트기 以前까지의 東獨農民이 가지고 있었던 넓은 耕地와 生産力의 發展은 輸出할 수 있을 充分한 잉여농산물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事實은 東獨自體에 있어 市民에 對한 農民의 비율이 다른 地域보다도 높았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고 한편 地理的으로는 西獨에 있어서의 都市 相互間의 거리에 비하여 동독의 그것이 훨씬 멀었다 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都市의 분포면에서 보더라도 동독의 농민이 시장에서 農産物을

---

26) 국내 및 해외시장이 확대되어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대응하여 대두된 대량생산 조직이 바로 공장제 수공업 (Manufacture)이다.

27) 쥘프트의 분해는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 하나는 길드 내부의 분열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길드 자체의 정책에 의한 職人 길드의 분열과 외부로부터의 商業資本의 침투로 길드의 階級分化를 초래했다. 둘째로는 확대되는 工業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길드특권의 지역인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 새로운 공업이 발생성장함으로써, 길드의 특권이 사실상 무력화 되어 버린 것이다.

조기준, *op.cit.*, pp.246-259.

최문환, *近世社會思想史* (서울:三英社, 1983), pp.20-23 참고.

販賣하여 換金하는데 불편하였기 때문에 最初에는 金納이었던 것이 점차 物納의 형태어로 農民의 의무가 변천해간다는 설명은 皮상적이거나 部分的으로 납득될 수 있다. 또한 메이바아움(H. Maybaum)의 설명을 들어본다면 15世紀에 東獨에 있어 領主收入의 主要源泉은 다음과 같은 理由로 因하여 점차 減少해갔다 한다. 즉 끊임없는 戰爭에 의하여 경작지가 황폐화되고 화폐가치가 저락<sup>28)</sup>함으로써 領主收入이 감소하여 領主의 直接經營(Gutswirtschaft)이 成立한다는 것이다. 領主는 自己의 收入源泉을 위태롭게 하는 「위기」가 나타나자 이를 解決하는 가장 가깝고도 쉬운 方法으로서 自己 스스로 經營을 맡아 보려고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력의 확보를 必要로 했던 것이다. 따라서 領主는 재판권을 把握하여 예속농민에 대한 公的 權力의 保持者로서 農民을 土地에 묶어두어야 하며 原則적으로는 賦役의 要求를 實徹할 수 있는 地位에 있어야만 했다. 이 외에도 15세기말 以來 곡물가격의 등귀는 영주의 욕구를 양양시켜 「領地經濟」에로의 成立에 박차를 加하게 하였다.<sup>29)</sup> 이와같이 하여 독일에서는 16세기 이래 소영지 경제가 더욱 강화 확대되었고 이와 반면에 농민의 부역노동은 더욱 심화되었으니, 소위 독일 사회의 후진성에 의한 再版封建制의 형성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동유럽에서는 농민의 예속관계(Untertagnis)가 재형성되었고<sup>30)</sup> 이러한 결

28) 화폐가치가 하락되었다는 것은 이 시기의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에 의하여 물가가 폭등했음을 의미한다. 가격혁명(price revolution)시는 물가가 3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29) 최문환외 3인, *op.cit.*, pp.147-148.

30) 당시 동독에 있어 隸民들은 다음과 같이 身分의 拘束下에 있었다.

과가 결국 당시 독일에서의 여러 농민사회운동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sup>31)</sup>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농민들은 로마 교황청의 지령을 받은 主教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실정이었다. 教會의 제후(大主教)들은 로마 교황청의 지령을 받아 10분의 1稅를 징수하는 데 한층 더 熱을 올렸고 누적되어 있는 부채를 갚는 데 필요한 財政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고안해 낸 것이 면죄부 판매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Luther는 농부의 아들로 출생했고 나중에는 광부의 아들로 성장했다. 그는 어린 시절 主教에게 돈을 빼앗기고 영주에게 착취당하면서 부르던 원한의 노래 소리를 못 들었으리 만무했다.

“우리들의 손으로 씨를 뿌리면  
聖職者들이 그것을 거두어 간다.”<sup>32)</sup>

大敎主들의 이러한 착취에 대하여 M. Luther는 1520년에 발표한 “독일의 기독교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Address to the Christian

- 
- ① 領主의 許可없이 그 土地를 떠날 수 없다.
  - ② 結婚하는데 있어 領主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領主의 許可없이 농업 이외의 生業을 할 수 없다.
  - ④ 자기의 지식 가운데서 하나를 영주의 요구에 따라 三年間 「머슴」으로내 놓아야 한다.
  - ⑤ 그들은 영주로부터 指定된 土地를 맡아서 경작해야 하며 또 마음대로 그 土地를 할 수 없다.
  - ⑥ 隸民制로부터 解說되기 위해서는 代償으로 解 金을 領主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신분상의 속박을 볼 때 농민들의 비참한 상태를 넉넉히 想像할 수 있다.

31) 이러한 사회운동으로는 한스뵘의 종교 사회주의 운동, 분드 슈운동, 급진파 운동 및 기사파의 난, 토마스 뮌저를 중심으로 한 農民운동 등을 들 수 있겠다.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에서 대중들의 생각을 너무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과연 왜 우리 독일인들은 교황의 손에 우리의 財産을 착취하고 강탈해 가는 것을 보고도 언제까지나 참아야 한단 말인가? 만약 프랑스 왕국이 이러한 작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 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바보, 얼간이 꼴을 당해야만 한단 말인가? …… 그리고도 우리는 왜 우리들의 영주들과 귀족들, 도시들과 그 재정, 나라와 국민들이 더욱 더 궁핍해지고 있나 의아해 하고 있다. 우리는 차라리 아직 먹을 것이나마 남아 있다는 事實을 奇蹟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sup>33)</sup>

## 2. 教會의 狀況

宗教改革의 봉화 M. Luther가 呼吸한 時代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商業資本을 通하여 産業構造가 大改編되고, 市民社會 成立의 世界史的 巨步가 前進한 時代였다. R. H. Tawney가 持擧한 바와 같이 法王, 발로와, 합스부르크, 튜더 王朝도 루터의 母國 南獨의 巨商에게 貨幣力으로 속박된 人形에 불과하던 때였다. 길드의 職工은 商人의 裁벌에 농락되어 임금노동자로 轉落하였으며 農民은 商業資本의 침식, 봉건농노제의 잔존으로 苦惱하고 있었다.<sup>34)</sup> 이런 가운데 사회는 점차 金力을 가진 자들의 수중에서 움직여지게 되었고, 교회도 세속주의에

32) 홍치모, *op.cit.*, pp.53-54.

33) Lewis W. Spitz. *op.cit.*, pp.49-50.

34) 최문환. 近世社會思想史(서울:三英社, 1983), p.49.

물들기 시작하여 교직매매 (Simony)와 면죄부판매 (Indulgence) 라는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당시 교회의 狀況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사회-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當時 一般封建領主가 直面하였던 財政의 궁핍을 로마교황청이나 大主教도 면하지 못하였다. 화폐경제의 發達에 따라 貨幣的支出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그 위에 新大陸의 銀이 가져온 價格上昇은 이들의 재정상태를 더욱 절박케 하였으나 종래의 封建的 收入은 점점 감소하여 갔다. 특히 貨幣支出을 强要한 것은 戰爭費用으로서 이것이야말로 中世末의 교황의 性格을 짐작케 하는 것이며 교황청재정의 最大 支出部分이 되었다. 즉 이때의 교황은 하나의 世俗君主로 轉落하여 自家勢力 확대와 영토신장과 財物에 눈이 어두워 전모술수, 살인, 戰爭을 서슴치 않고 감행하였다.<sup>35)</sup>

특히 교황 Alexander VI (1492-1503)의 아들 Caeser Borgia는 그의 아버지의 在位中 領土擴張과 勢力增進을 위하여 背信, 陰謀, 毒殺 등 흉악한 犯罪를 다반사로 행하여 「犯罪의 거장」이 되었다. 그 뒤를 이은 Julius II (1503-1513)도 有能한 戰略家였다.

이 戰費와 더불어 교황청지출의 큰 몫을 차지한 것은 교황청판리의 俸給이었다. 12世紀以來 教會政治는 中央集權化가 되었다가 교황청의 官吏의 수와 使用人의 數는 점점 증가되어 이들에 대한 俸給額 數는 莫大하였으며, 그 外에도 教會自體의 雜多한 支出이 增大되어 갔

---

35) 이대섭, "Lutheranism의 成立過程과 그 社會的 性格"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64), p.44.

다.<sup>36)</sup>

또한 성당 건축을 위하여 막대한 돈이 필요했다. 15.6 세기에 성당들이 새로이 많이 建築되었는데, 처음에는 장려한 고딕 양식으로 그 후에는 르네상스 양식을 따랐다.<sup>37)</sup>

성당건축, 戰費조달<sup>38)</sup>과 교황청관리의 보급등으로 費用을 屢출하기 위하여 교황청은 여러가지 무리한 方法을 쓰기 시작하였다. 즉 교황청은 高利貸資本家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結果的으로 金融業者, 大商人의 대두를 촉진하였으며 教職賣買을 公然히 自營하고 Indulgence를 자주 發行하게 되었다. 教職賣買의 代表的인 것은 初年收入稅인데, 그것은 새로 취임하는 大主教, 主教 修道院長等은 1年間 그 담당區域에서 거두어 들일 收入의 豫상액을 支出하여야 하는 것이었다.<sup>39)</sup> 또한 공석중인 聖職에 지명될 때 이에 대한 댓가로 金品을 要求하는 聖職豫約制등을 制度的으로 實施함으로써 賣官賣職의 기회는 점차 증가하기만 하였다.<sup>40)</sup> 그리고 大主教가 就任할 때 교황이 下賜하는 法衣(Pallium)는 원래 無償이었는데 교황청의 財政이 困難해져서 巨額의 法衣代를 要求하였다.<sup>41)</sup> 또한 성직들을 친척들에게 수여하는 族別정치의 경향도 점차 짙어가기만 하였다. 그리하여 교황 레오 10세(Leo X: 1513-1521) 하에서 돈주고 살 수 있는 聖職의 數는 사상 最高에 달하였으며, 그는 出身 家門인 메디치(Medici)가의 商才

---

36) *Ibid.*, pp.44-45.

37) Lewis W. Spitz, *op.cit.*, pp.28-29.

38) 터어키인에 대항하기 위한 십자군 원정 자금의 조달을 말한다.

39) 이대섭, *op.cit.*, pp.45-46.

40) Lewis W. Spitz, *op.cit.*, p.30.

41) 이대섭, *op.cit.*, p.46.

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돈 받고 팔 수 있는 자리를 創案해내었다. 이에 따라 Radix Omnium Malorum Avaritia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근원이니라) 하는 구절의 라틴어 頭文字를 따서 만든 로마, 즉 ROMA 라는 풍자가 유행하였다. 인노센트 8세 (Innocent VIII)가 재위하던 中 로마를 방문한 Augsburg 市の 서기 콘라드 푸팅거 (Conrad Peutinger)는 기독교권의 수도 로마의 참혹한 부패상을 1491년에 다음과 같이 記錄하였다.

“나는 이곳에서 상하를 막론하고 돈으로 사지 못할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陰謀와 僞善, 아침은 世人들이 흠모하는 바요, 宗教는 脫線하였다.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野卑한 일이 發生하고 있으며 正義는 잠자고 있었다. 폐허가 된 고대의 유적들을 볼 때마다 들어보지도 못한 僞善과 虛飾으로 모든 포악과 악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이 유명한 都市가 支配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恨歎치 않을 수 없다. 이 악한 者들은 규제받는 대신 칭송을 누리고 있다. 내가 그들을 非難하자 그들은 다 宿命에 의해 豫定된 일이라고 응답하였다.”<sup>42)</sup>

高位教職者(聖職者)들이 이와 같이 莫大한 金額을 支拂하고 그 地位에 오르면 그 費用을 教區民으로부터 收奪할 것은 自明한 일이며 그러한 聖職者들의 人格과 道德的인 상태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當時 主教나 修道院長의 大部分은 C. F. Hayes가 말한 바와 같이 陰謀政治家(Scheming Politician)였으며 억압적인 金錢收奪者 이

---

42) Peutinger to Valentin Eber, August 5, 1491, in Konrad Peutingers Briefwechsel, ed. Erich König (Munich, 1923), p.9.

(Lewis W. Spitz, The Reformation, p.30에서 재인용)



있고 浪費家였으며, 음탕한 享樂主義者(Sensual Epicurers)였다.<sup>43)</sup> 私生兒를 가진 神父가 천연스럽게 미사를 드렸고 修道士의 大部分은 일하지 않고 편안한 生活을 한다는 것 以外에 다른 理想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고위 聖職者들과 반대로 다수의 敎職者들, 특히 시골에 살고 있는 이들은 貧窮의 길을 걷고 있었다. 聖職者用으로 구분해둔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이 너무나 적어서 聖職者들은 法을 어기면서도 여러 교구를 同時에 맡아가지고 있던가, 혹은 수도사들과 마찬가지로 극빈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특히 修道院이 있는 곳에 인접한 교구의 代牧(Vicar)들이 얻는 수입은 극도로 小額이었다.<sup>44)</sup>

이상에서 言及한 교황청의 收奪과 腐敗는 國民國家의 대두로 王權의 制裁를 받았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落後된 獨逸과 伊太利만이 이 더럽고 무거운 짐에 눌러 신음하게 되었다. 特히 Indulgence 販賣는 루터뿐 아니라 人文主義者들과 諸侯들의 憤怒를 일으켰다. 이미 十字軍時代에 생긴 Indulgence는 이때에 심령적, 經濟的, 道德的 諸方面에 많은 害를 주고 있었으며 그 去來方法도 低俗한 商人의 그것보다 낡을 것이 없었다.<sup>45)</sup>

Albrecht의 擔當敎區에서 販賣된 問題의 Indulgence도 역시 로마敎 財政의 窮乏이 招來한 商業去來였다. 1507년에 줄리우스 2세 교

---

43) Carlten F. H. Haye5, A Political and Cultural History of Mord-ern Europe Vol. I. (Washington, 1944), p.3 (재인용).

44) Lewis W. Spitz, *op.cit.*, pp.30-31.

45) 이대섭, *op.cit.*, pp.47-48.

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의 建築기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절대면죄부 (plenary indulgence) 를 발행한 일이 있는데, 1513年 교황 레오 10세 (Pope LeoX)는 이 면죄부를 再發行하게 하고 막테부르크와 마인츠 대주교구에서의 販賣總責에 브란덴부르크의 알버트 대주교 (Archbishop Albert : 1490-1545) 임명하였다.<sup>46)</sup> 그러나 그 당시 Albert는 연령이 미달되어 대주교에 임명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그는 겨우 23세였다) 교황 LeoX에게 필요한 돈을 지불함으로써 대주교에 임명될 수 있었다. 성 베드로 聖堂을 짓기 위하여 돈이 필요했던 LeoX제의 계산과 Albert의 慾望이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1513年 Albert는 Magdeburg 大主教가 되었으며 Halberstadt 教區도 차지하였고, 그 다음해에는 영예로운 Mainz 大主教로 選出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로는 大主教가 될 수 있는 연령에 未達하였을 뿐만 아니라, 一教區以上 擔當이 禁止되었는데도 大教區를 셋이나 차지하여 教會法을 위반하였다.<sup>47)</sup> 교황은 이러한 極惡한 多數教區兼任의 不法을 묵인하는 代價로 12,000 ducat 를 要求하여 1萬 ducat 로 妥協을 보았으며, 特別免除費 (dispensation), 法依代 (Pallium) 外 經費를 省略해서 Albert는 34,000 ducats (1ducat = 約 23 佛)를 消費하게 되었다.<sup>48)</sup> 이것은 巨額의 돈이었는데, 교황은 Albert로 하여금 당시 Augsburg에 있는 高利代資本家인 Fugger로부터 借入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황은 교서로 Indulgence를 販賣하는 권한을 Albert에

46) Lewis W. Spitz, *op.cit.*, p.68.

47) Earle E. Cairns,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y* (Michigan : Academie Book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1), p.282.

48) Harold J. Grimm, *The Reformation Era 1500-1650* (New -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63), pp.106-108.

게 주면서, 販賣貨金을 半分하기로 하였다. Albert는 Indulgence를 판매하여 半은 교황에게 지불하고, 다른 半은 Fugger에게 支拂하였던 것이다.<sup>49)</sup> 그러나 Albert는 Indulgence 販賣者에 對한 訓令에서 그 추악한 내막을 숨기고 Peter, Paul等 使徒들의 유해가 悲慘한 狀態에 놓여 있어 이를 安置할 大寺院을 補修해야 한다는 허울 좋은 口實을 붙여 販賣者로 선전케 하였던 것이다.<sup>50)</sup>

1517年 Albert는 Indulgence 販賣에 대한 많은 經驗과 能熟한 手段을 가진 Dominkan 修道士 Tetcel을 Indulgence 販賣責任者로 採用하였다. 텃첼은 特殊한 稅率換算表를 마련하여 여기에 따라 Indulgence를 판매하였다. 그 환산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王(King), 大主教(Archbishops), 主教(Bishop)는 25 Gulden

백작(Counts)은 10 Gulden

商人(Businnessmen)은 3-6 Gulden

동업조합원(Guild Member)은 1 Gulden (= 13 \$)

農民(The Poor)은 半 Gulden을 支拂하도록 하였다.

텃첼은 자기가 가려는 地方에 먼저 代理人을 보내어 그 地方 形便과 各家庭의 經濟的인 狀態를 미리 調查하여 記錄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교황의 紋章이 든 붉은 十字架를 앞에 세우고 수레에 높이 앉아 그 地方에 가면 그곳 教會에 들어가 붉은 十字架 제단을 세우고 면제부가 든 箱子는 그 밑에 놓았다. 그리고는 信者들의 마음에 恐怖心을 일으키기 위하여 웅변적으로 地獄과 煉獄에서 받을

49) Earle E. Cairns, *op.cit.*, p.282.

50) Roland. H. Bainton, *The Age of the Reformation.*(Prinston : D. Van Nostrand Co. 1956), pp.27-28.

罰을 強調하고 이 면죄부를 사는 者는 過去에 지은 罪는 勿論이고 장차 犯할 罪도 容恕받으며 煉獄에 있는 영혼까지도 구할 수 있다고 소리쳤다.

“돈이 께 짝속에 들어가 짤랑 소리가 나자마자 영혼은 煉獄에서 해방에서 뛰쳐나온다. 그대들은 적은 돈으로 그대들의 父母를 무서운 煉獄불에서 건져낼 수도 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悲痛中에 있는 父母를 救出하지 않고 背恩忘德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說教으로써 信者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父母들의 慘狀을 想像케 하여 Indulgence 賣上高를 올렸다.

Luther 는 이와같은 면죄부 판매가 信者들의 信仰生活에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매우 염려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몇몇 教區民이 다른 地方에 가서 Indulgence 사가지고 와 訓戒하는 루터의 面前에서 그것을 휘둘러 그를 激憤시켰으므로 그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Indulgence 가 外的害惡은 물론 진정한 참회의 存續을 위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sup>51)</sup>

1517年 4月 텃첼이 삭소니 선거국(Electoral Saxony) 경계 가까이 이르자 수많은 비텐베르크 교인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 모여들었다. Luther 는 여러 主教들에게 이 사태를 방지시켜 줄 것을 要請하였다. 이들이 아무런 措置를 취하지 않자 그는 면죄부에 관한 95개 조문을 作成하여, 이 사본들을 브란덴부르크의 주교 제롬(Bishop Jerome of Brandenburg)과 순진하게도 브란덴부르크의 대주교 Albert 에게까지 발송하였다. Melancton 의 기록에 의하면 Luther 는

51) 이대섭, *op.cit.*, pp.49-52.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 (Michigan: WM. B. Eerdmans Publ. Com, 1984), pp.756-767 참조.

만성절 (All Saint's Day) 날 캐슬 教會 (Castle Church)의 북쪽 문에 95 개 조문을 붙이고, 누구든지 이에 관하여 學問的 討論을 하고 싶으면 나오도록 排戰하였다고 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 4:17)고 외치셨을 때 이는, 즉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신 것이다.”라고 기록하였다.<sup>52)</sup>

---

52) Lewis W. Spitz, *op.cit.*, p.68.

### Ⅲ. 종교개혁자들의 경제관

루터가 宗教改革을 일으킬 당시 유럽의 經濟的 狀況은 이미 앞장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中世 封建制度하에서 그 명맥을 유지해오던 莊園經濟가 몰락하고 새로 대두한 新興 商業資本主義가 그 위력을 과시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中世 前期에 支配的이던 莊園經濟는 中世 後期를 특징짓는 도시 경제, 즉 화폐經濟에 의하여 붕괴하게 되어 産業構造는 大改編이 되고 市民社會 成立의 世界史的 巨步가 前進한 時代에 宗教改革이 發生하게 된 것이다. 상업자본주의가 그 위력을 과시하던 이 때에 社會는 점차 金力을 가진 자들의 手中에서 움직여지게 되었고, 교황청도 世俗주의에 물들기 시작하여 교직매매와 면죄부 판매라는 엄청난 타락의 結果를 가져왔다. 이러한 교회에 抗拒하여 1517年 10月 31日 M. Luther가 宗教改革의 봉화를 높이 들었을 때, 유럽 社會는 심각할 정도로 변화해 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M. Luther에 의하여 시작되고 J. Calvin에 의하여 完成된 宗教改革運動은 단순히 宗教의 改革運動에만 머문 사건이 아니라, 中世 유럽 Catholic 文明圈 全體의 政治, 經濟, 社會, 思想등의 기반을 흔들여 놓은 사건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는 宗教改革者들이 莊園經濟를 몰락시키고 새로 등장한 新興資本主義에 어떤 影響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考察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1. Martin Luther의 經濟觀

Martin Luther가 Wittenberg 城 教會의 正門 위에 宗教改革이

라는 巨大한 歷史的 불길을 이끌어낸 「95 個條論題」를 못박은 이후, 巨大한 歷史의 물결에 휩쓸려 Luther 는 宗教改革의 先峰에 서게 되었다. 또한 獨逸의 社會的인 諸要素가 루터 활동의 좋은 밑받침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위대한 決斷을 敢行케 한 強力한 촉진제가 되었다. 특히 당시 獨逸社會의 中心勢力이었던 諸侯의 후원이 야말로 루터의 宗教改革을 成功시키는데 있어 決定的인 힘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Sachsen 選帝侯 Friedrich 는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루터를 보호하였던 강한 城이었으며 튼튼한 방패였다. 이러한 理由 때문에 루터는 身分과 예속에 관한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 社會的 供給조직을 받아들이게 된다.<sup>53)</sup> 이 사실을 우리는 Thomas Muntzer (1498-1525) 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農民反亂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알 수 있다. 15 세기 후반서부터 西南 獨逸 일대에서 부터 시작된 農民反亂은 1524 年 가을부터 본격화되어 갔으며, 農民들은 그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모아서 「12 個條」를 발표하였다. 이때 루터는 교회 영주 및 세속 영주들을 비롯하여 농민들에게 보내는 「평화의 권고」를 公布했다. 루터는 勸告文에서 어리석은 교회 영주들의 학정을 비난함과 동시에 農民들의 正當한 要求를 받아들일도록 強力히 촉구하였다. 한편 農民들에 대해서는 反亂이 옳지 못하다고 警告했다. 이와 같은 루터의 권고는 使徒 바울의 사상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이었다. 즉 “관현들이 사악하고 부정하다는 것은 도당이나 반란의 구실이 되지 못한다. 惡을 벌한다는 것은 누구나 해도 좋다는가 또

---

53) R. H.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李景植譯(서울 : 展望社, 1983), p.109.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겹을 차고 있는 관헌에게만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루터는 “모든 권위는 神에 의해서 세워지며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에 服從하라”고 경고하면서 農民들의 과격한 행동을 나무랐던 것이다.<sup>54)</sup>

그러나 뮌저는 農民戰爭이 勃發하기 직전 시바벤·튀링겐 뮌하우젠 등 여러 都市들을 방문하면서 農民들의 團結과 결속을 호소하였다. 그의 호소 가운데서 神學的 메시지는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富의 분배에 관한 내용만이 가득 차 있었다. 뮌저는 역설하기를 “모든 것은 共有的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그때의 사정과 必要에 따라서 分配되어야 한다. 이것을 실시하고 싶어하지 않는 諸侯 신사들은 그들의 목이 잘리거나 매달리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하에서 農民들의 폭동이 작센주의 近處에 까지 과급되자 루터는 돌연히 반농민적인 態度를 보이면서「살인 강도를 일삼는 농민의 도당」을 배격하는 責字를 간행하여 領主들로 하여금 農民들의 폭동을 진압시키는 데 일제히 반격을 개시할 것을 촉구했었다. 영주군이 반격을 가하게 되자 본래 기초적인 훈련과 組職이 없이 싸웠던 농민들은 宿命的으로 도처에서 領主軍에 의해 산산히 무너지고 말았다.<sup>55)</sup> 이러한 그의 태도로 말미암아, 後에

54) 홍치모, *op.cit.*, pp.70-74.

J. M. Porter, Luther: Selected Political Writings, 홍치모 역(서울: 컨콜디아사, 1985), pp.103-124 에는 「평화를 위한 제언」이 수록되어 있고, pp.125-130 에는 「농민폭도들의 만행에 반대함」이 수록되어 있다.

55) 홍치모 교수는 농민戰爭에서 農民들의 敗北는 독일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상실케 된 역사적 계기가 되었고, 독일의 후진성과 문화발전이 지연된 요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홍치모, *op.cit.*, p.75.



언급하게 될 루터의 직업적 召命感(Beruf, Vocation)이 칼빈주의(Calvinism)를 신봉하는 諸國에서는 자본주의 정신의 발전에 寄與하였다고 주장하리만큼 그의 사상이 보급되었지만, 관료적 국가주의의 신분제적 社會秩序 속에서는 한갓 무력한 「忍從의 윤리」로 머물고 말았다. 영국의 淸教徒革命운동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sup>56)</sup>

農民戰爭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가 身分과 예속에 관한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계급조직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충분히 農奴 制度는 社會의 必要한 基礎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商業과 資本主義를 증오했다.<sup>57)</sup>

사람들이 富와 權力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Luther는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기독교인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生活의 糧食을 얻어야 하며,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며, 젊어서 結婚하고, 그 자신을 위하여 必需品를 準備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늘에다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Melancthon 처럼 루터는 가장 찬양할 만한 生活은 農民의 生活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農民의 生活은 事物을 부패시키는 商業的 打算의 精神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교역은 만일 그것이 必需品の 교환에 국한되고 또한 판매자가 자신의 노동이나 위험의 보상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

56) *Ibid.*

全獨逸 國民의 대변자와 영웅으로 섰던 Luther는 農民戰爭 以後로는 단지 한 宗派의 指導者에 不過하게 되었다.

57) R. H. Tawney, *op.cit.*, pp.108-110.

許容될 수 있는 것으로 그는 보았다. 그는 반역하는 농민과 탐욕스런 독점자에 대해 거의 한결같은 격노를 가지고 있었다.<sup>58)</sup> 루터는 눈에 보이게 붕괴해 가고 있는 세계의 家父長的 논리를 理想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 및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민을 갖고 있지 않았다. 여기에 Luther는 Calvin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Calvin은 그의 엄격함에도 下拘하고, 商業 文明의 主要한 制度를 받아들였으며, 또한 미래를 支配하게 될 계급들에 대해서 하나의 信條를 공급했다. 그러나 Luther는 눈은 過去에 쏠리고 있었고,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는 英國의 政治家들이 일찌기 人類의 自然的 代表者라고 일컬었던 소위 중산 계급을 받아들일 여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국제 무역, 은행업 및 신용, 資本主義 産業, 즉 그 자신의 革命에 이어서 中世의 세계의 가장 강대한 용해제가 되어질 경제적 세력들의 合成物 전체는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의 참다운 본질에 있어서 기독교가 回避하고 있는 암흑의 王國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교회법의 權威를 공격했으나, 결국 그는 그것이 恒常 실시하고 있었던 세부의 규칙에 대해서는 한층 더 독단적으로 다시 긍정했다.<sup>59)</sup>

가격문제에 있어서 그는 단순히 傳統的인 諸教理를 되풀이할 따름이었다. “사람은 ‘나는 물품을 될 수 있는 한 또는 내가 만족할 만큼 값비싸게 팔아야겠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나는 나의 물품을 정당한 값으로 팔아야겠다’ 라고 말해야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販賣는 그대가 어느 누구에게도 의무를 지

---

58) *Ibid.*, p.109.

59) *Ibid.*, pp.110-111.

고 있지 않은 神인 양, 法律이나 制限을 조금도 수반하지 않는 그대 자신의 힘이나 의지의 범위 안에 있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의 販賣는 그대가 그대의 이웃에 대해서 수행하는 일이 되고 있으므로, 그 일은 그대가 이웃에게 손해와 상해를 주지 않고 그 일을 실행할 수 있을 만큼 法律 및 양심의 범위 안에 抑制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만일 價格이 공적인 강권에 의해서 정해진다면, 販賣者는 그 價格을 고수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일반적 평가에 입각한 價格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 만일 그가 價格을 스스로 決定해야 한다면, 그는 자신의 生活上의 地位와 자신의 努動, 또는 자신의 위험에 대해서 자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입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그리고 그는 그것에 따라서 價格을 決定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는 價格을 높이기 위해서 缺乏을 利用해서는 안 된다. 그는 시장의 買占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는 투기적으로 사들여도 안 될 것이다. 그는 支拂이 지연된다고 해서 한층 더 값비싸게 팔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sup>60)</sup>

高利라는 問題에 관해서는 루터의 정통과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 그는 教會法 학자에 의해서 행하여진 實際的 必要에 대한 양보를 고발했다. “독일 국민의 最大의 下幸은 쉽게 利益上으로 거래한다는 데 있다……악마가 그것을 발명했던 것이다. 그리고 교황은 그것을 인가함으로써 世界 안에서 무수한 악을 행하였던 것이다.” 대부분은 自由로와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

60) R. H. Tawney, *op.cit.*, pp.111-112.

는 利子의 支拂을 損失에 대한 보상이나 地代負擔에 投資하는 관습의 두 가지를 교회는 루터의 時代에 許容하고 있었다고 고발했던 것이다. 그리고 고리대금업자에게는 성찬과 사면 또는 기독교적 매장을 저절하기를 바랐다. 이와 같은 논리학 法典을 가지고 루터는 自然히 自身の 世代之 特徵的 諸發展 즉 東洋과의 사치품 貿易, 국제 금융, 換에 대한 투기, 연합 및 독점-이 지나칠 정도로 혐오할 만한 것이 되어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캘리컷나 인도, 또는 그와 비슷한 지방들로부터 귀중한 은이나 보석 또는 향료와 같은 物品을 가지고 들어와서……國土와 民衆으로부터 金錢을 奪趣하는 外國 商業은 許容되어서는 안 된다…… 연합에 대해서는 나는 實際로 많은 사실을 말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끝도 없고 밑바닥도 없으며, 다만 貪慾과 부정이 꼭 차 있을 따름이다…… 연합이란 단순히 노골적인 독점에 지나지 않으며, 異教徒의 民法조차도-하물며 신성한 그리고 正義로운 基督敎的 法律이-그것을 전 世界에다 분명한 유해물로서 단죄하고 있다는 事實을 알지 못할 만큼 그 어느 누가 우둔하단 말이겠는가?”<sup>61)</sup>

Luther는 중세기 後期의 思想家들 가운데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直解를 가지고 중세의 경제상의 가르침에 대한 內容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다.<sup>62)</sup> Luther는 中世的 牧歌的인 田園社會를 理想社會로 그리면서 經濟的 發展에 따라 複雜化·商業化한 近代 文化에 對하여 혐오감을 가지고 르네상스 時代의 教養人과 같은 宗教的 道德的인 이

61) R. H. Tawney, *op.cit.*, p.112.

62) *Ibid.*, p.113.

완에 대하여 反對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루터는 外界的인 것에 대하여 無關心이고, 다만 성서에 의한 內面的인 救濟를 強調한 故로 宗教가 사회적 내용에서, 社會가 精神에서 離脫하게 되었다. 宗教를 다만 경건한 個人的 良心에만 호소한 결과, 宗教의 領域에서 소외된 現實的인 社會制度는 世俗的인 國家에 그 權力을 委託하게 되었던 것이다.<sup>63)</sup>

이처럼 Luther는 中世的 牧歌的인 田園社會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商業 및 資本主義에 대해서 혐오하였다. 따라서 Luther는 자본주의의 발생과 더불어 새로이 등장한 中産階級을 받아들일 여지를 보이지 않았고, 資本主義 發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의 職業觀에 있어서는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諸國에서 資本主義 정신의 發展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제 그의 職業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Luther의 “오직 신앙”(Sola Fide)과 萬人司際職 등의 思想은 특수한 修道士에게만 適用되는 高次元的 논리나 大衆을 위한 世俗윤리의 분리를 許容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모든 職業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召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의 윤리적 價値는 그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작은 보잘 것 없는 일이라도 얼마나 誠實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Luther는 여기서 어떤 처지의 職業이나 貴賤을 막론하고 그것이 모두 召命이 될 수 있다는 길을 터놓게 되었다. 1522년에 와서 Lu-

---

63) 최문환, *op.cit.*, p.51.

ther 는 모든 職業과 階級등이 召命이 될 수 있다고 단언하게 된다.<sup>64)</sup> 어떤 처지에서 어떤 職業에 종사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召命이 된다는 것이다. Luther 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바울의 말을 근거로 하여 크리스찬의 부르심(召命)은 자기 能力의 最善을 다하여 세상의 일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구두수선공은 구두를 적당하게 잘 수 선해야 한다. 그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奉仕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루터에게는 召命이 지상적 또는 靈的 勞動 概念을 가지고 있다.<sup>65)</sup>

人間은 만사가 모두 자기만을 위하여 전개되어졌으면하고 바란다. 즉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奉仕해 주기를 希望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能力의 最善을 다하여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召命은 無意味하게 되고 만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의 힘으로서 “秩序”를 세워서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가능케 한다. 이 秩序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관하여」(Von Abendmahl Christi, 1528)라는 論文에 나타난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秩序들은 聖職과 結婚과 세상 政府 등 셋이다.<sup>66)</sup> 召命은 이러한 세 秩序 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 召命은 이 세 질서 안에 고정되고 변함 없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세 질서 위에 사랑이 있다. 이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궁핍한 모든

---

64) Gusta Wingren, Luther on Vocation, 맹용길 역, 루터의 召命論 (서울: 컨콜디아사, 1975), p.14.

65) 맹용길, 기독교 윤리학 입문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76), p.135. (재인용)

사람에게 奉仕하고 원수를 容恕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릇된 것에 대해서도 기꺼이 고난을 감수한다. 사랑은 召命으로 要求되는 모든 것을 행하고 참고 감당하게 하는 내적 自發性이다. 그것은 요구되는 것을 넘어간다.

Luther 가 일상생활의 神性을 강조한 것은 改新教 思想에 극히 重要的 特徵으로 남게 되었다.<sup>67)</sup> “수도사가 모든 것을 버리고 修道院에 들어가, 금식, 철야, 기도 등등의 금욕생활에 정진할 때, 그것은 한 위대한 일 같이 보인다. 그 반면에 한 女性이 요리하고 빨래하고 그 밖의 작양 집 안 일에 부지런한 것은 한 작은 일 같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작은 일도 수도사나 수녀들의 성결과 금욕 이상으로 칭찬 받을 만한 하나님 봉사란 것이 認定되어야 할 것이다.”

Luther 의 Beruf, 직업 곧 하나님의 숙명이라는 “天職”론은 사람의 일상 생업에 宗教的 위신을 부여함과 동시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민주주의 사상에 根源的인 감화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그는 “내게 주어진 위치와 그 義務”라는 中世期 思想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즉 그의 주어진 고장에서 그의 삶의 위치 (Station) 를 변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이며 높은 召命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理由로 農民戰爭 때에 Luther 는 농민 편에 서지 않았으며, 그들이 본래의 위치에 돌아가

---

66) Gusta Wingren, *op.cit.*, p.63.

67) Georgia Harkness, *Christian Ethics*, 김재준 역 기독교 윤리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3), p.208.

安定하기를 권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당시의 사회적 계층에 또 하나의 宗教的 公認을 더한 것이었으며 이것이 지금까지도 유럽 사회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sup>68)</sup>

우리는 여기에 루터가 자본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간단히 결론을 지어 보고자 한다. Luther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는 중세의 奉建制度가 붕괴하고 新興資本主義가 成長해 가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루터는 불행히도 中世의 牧歌的 田園社會를 理想으로 하였기 때문에 商業과 資本主義를 혐오하고 배척해 버렸던 것이다. 農民戰爭에 대한 그의 태도는 오히려 封建 領主의 勢力을 強化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資本主義 發展에 否定的인 영향을 미치고 말았다. 그러나 루터의 職業的 召命感(Beruf, Vocation)은 칼빈주의(Calvinism)를 신봉하는 諸國에서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Luther가 일상생활에 神性を 강조한 것은 改新教 思想에 아주 重要한 特徵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 2. John Calvin의 經濟觀

John Calvin이 제네바(Geneva)에 到着한 1536年은 Calvin 한 사람의 生涯만이 아니고 프랑스와 스위스의 宗教改革 運動에 한 전환점을 찍은 해였다. Calvin의 目的地는 애당초 제네바가 아니라 바젤(Bassel)이었고, 그곳에 定着하여 조용히 工夫하면서 著書를 刊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제네바에서 改革運動을 推進하고 있던 老改

---

68) G. Harkness, *op.cit.*, p.209.



革家 화렐 (Farel)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Farel의 간곡한 要請에 못  
 이겨 제네바市에 머물게 된 Calvin은 聖 베드로 (St. Peter) 大聖堂  
 에서 Paul 書信을 강해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日課가 되었다. 이렇  
 게 하여 無名의 改革家 Calvin은 改革者로서 宗教改革運動의 첫발  
 을 내딛게 되었다.<sup>69)</sup> Calvin은 그곳 제네바 (Geneva) 市를 기독교적  
 도시국가의 전형이자 프로테스탄트의 中心地로 만들면서 M. Luther 에  
 의하여 시작된 宗教改革을 完成하게 된다.<sup>70)</sup> 당시 제네바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간의 교역 중심지이자 레만 (Leman) 호숫가, 스위스 연방  
 의 연방의 국경지대에 위치했으며 명목상 제국과 프랑스 王國의 統  
 治 아래 있었다. 16세기의 처음 10年 동안 카톨릭령 프리부르크 (Fribourg)와  
 프로테스탄트 베른 (Bern)의 도움을 등에 업은 제네바는 封建領主이던 사보이 (Savoy)가와, 인척관계를 맺으면서 종교적으로  
 제네바를 통치하고 있던 제네바의 주교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데 成  
 功하였다. 1519년 경에는 都市 發展과 商業의 번영을 억누르던 封建  
 的 세력을 격퇴시킨 바 있었다.<sup>71)</sup>

여기서 우리는 Calvin이 宗教改革을 주도하던 그때의 제네바를 비

69) 홍치모, *op.cit.*, pp.147-154.

70) 宗教改革에 이어지는 두 세기 동안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티즘의 가장 특징적  
 이고 유력한 형태는 어떤 통로에 의해서든 간에 Calvin의 가르침에서 전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alvinism은 그것의 모체였던 루터주의와는 달리, 많  
 은 나라에서 여러가지 다른 형태를 취하면서 하나의 국제적 운동이 되었다.

(R. H. Tawney, *op.cit.*, pp.119-120).

71) 제네바의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신흥자본가 제급인 중산층을 대변하  
 는 Calvin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Lewis W. Spitz, *op.cit.*, pp.216-217.

못한 유럽의 경제적·정치적·상황에 대해서 다시 상기해 보자. 16세기 서구사회는 대단히 소란한 社會였다. 사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힘 때문에 폭발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個人的인 利權 획득에 혈안이 된 많은 군주들의 군사적 유혈투쟁이 사회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백년전쟁, 부르군디 전투, 이태리 전투등으로 유럽은 끊임없이 황폐화 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사회는 경제질서의 급변에 뒤따른 社會的 革命運動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었다.<sup>72)</sup>

새로운 세계의 발견은 結果的으로 유럽에 엄청난 量의 金을 제공해 주었으며 그 결과 수많은 産業이 잉태되었고 교역이 활발해졌다. 고대의 商社 制度만으로는 이처럼 엄청나게 증가된 活動을 수용할 수도, 주도해 나갈 수도 없었다. 統制되지 아니한 資本主義가 고대도시의 産業中心地 밖에서 잉태되어 급속도로 팽창했다. 資本主義 發達로 말미암아 생계비는 엄청나게 치솟는 반면 노동력의 가치는 下落되었다. 도시와 시골에서는 급속한 무산계급화(無産階級化)가 이루어졌다. 즉 가난한 다수의 賃金勞動者들이 出現하였다. 이러한 問題 때문에 中世社會의 體制가 무너져 가고 있었고, 教會는 宗教改革으로 말미암아 內面的인 信仰의 각성이 일어났다. 教會는 福의 再發見으로 말미암아 社會 問題들에 대해 전적으로 새로운 理解를 하게 되었다. 개인종교의 문이 世界를 향하여 열리고, 그와 동시에 社會問題들이 神學思想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도피된 생각만 하고 있던 중세의 個人宗教에 비교해 보면 전혀 새로운 現狀이었다. 이렇듯

---

72) André Bié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홍치모 譯(서울: 성광사, 1985), p.51.

이 基督教信仰, 思想, 行爲가 社會問題에 對해 관심을 表現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變形되었다는 點을 가장 잘 說明해 주는 것은 칼빈이 로마 教會를 떠나 새로운 信仰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決定했다는 事實이다. 73)

1533 年까지만 해도 Calvin 은 카톨릭 中산계급의 特征이던 따분하고 인습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로마교의 상황 안에 나타난 人文主義 改革者들처럼 칼빈도 새로운 思想과 지성에 개방적이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의 信仰은 매우 균형이 잘 잡혀 있었기 때문에 傳統을 뒤엎는 일을 두려워 했고 초창기의 소규모 복음주의 단체의 革命的 분위기를 조소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신앙과 사회는 두 개의 분리된 領域으로, 개인논리의 次元을 떠나서는 아무런 相互依存이나 상호 관련도 맺고 있지 않았다. 그의 세계가 주석을 읽으면 이러한 그의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다. 74)

그러나 Calvin 은 일단 改宗한 뒤엔 갑자기 그리고 아주 자유롭게 王과 支配階層이 위험한 혁명분자요 또한 폭도들이라고 간주했던 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했다. 「기독교강요」 초판 서문에서 발견되는 그의 서신은 1535 年 봄에 프랑소와즈 1 세에게 보내는 글인데 이 글이 칼빈의 公的 活動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탄이었다. 칼빈은 이 便紙에서 福音이 이 世上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要求하고 政治 및 諸般事에 있어서는 커다란 희생을 要求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한 자들을 격렬하게 공격한다. 칼빈은 信仰과 世上을 두

---

73) André Biéler, *op.cit.*, pp.51-53.

74) *Ibid.*, p.54.

개의 분리된 領域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世俗都市에 대한 관심이 그의 基督教 信仰의 直接的인 表現이었다.<sup>75)</sup>

그러면 이제 Calvin의 경제관을 살펴 보기로 하자.

Calvin은 농민과 神秘家의 눈으로 경제생활을 보았던 루터와는 달리, 農民的인 공동체의 가부장적 미덕들을 이상화하지 않았으며, 商業이나 金融에 있어서의 資本主義 企業의 단순한 사실을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지도 않았다. Calvin은 經濟的 利害를 人間事의 아주 작은 방편으로서 취급하고 있는 전통적인 社會 논리학의 도식이 不適切한 것 혹은 인위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을 것이 틀림없는 그러한 社會團體들 속에 있었다.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연스럽게 자본과 신용 및 은행업, 또는 대규모의 상업 및 金融, 혹은 또 그밖의 사회 생활의 많은 實際的 事實에 대한 솔직한 인정에서부터 出發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生存에 필요한 것을 넘어서” 經濟的 利害를 앞세우는 것을 비난할 만한 것으로 여기며, 중간 상인을 寄食者, 高利貸金業者를 도적으로 모욕하는 전통과 절연했다. 그들은 루터나 중세의 저작자들에게 *turpe lucrum* (더럽혀진 이득)으로서 간신히 비난을 면했을 뿐인 교역 및 金融의 이윤을 노동자의 소득이나 地主의 地代와 똑같은 존엄의 水準에 갖다 놓았다. Calvin은 어느 書信 交換者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보낸 일이 있었다. “거기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왜 사업에서 얻은 收入은 土地 所有에서 올리는 收入보다 한층 더 많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商人의 이윤은 어디서 온단 말인가? 만일 그 자신의 근면이나 산업으로부터가 아니라

---

75) *Ibid.*, p.54-55.

고 한다면?” 이 말은 부처(Bucer)가 商人의 간계라든가 탐욕을 고발하고 있었을 때까지도, 영국 政府에게 양모 産業의 發展을 重商主義의 선상에서 시도하도록 권유해야만 했었던 그 말의 정신과 전적으로 一致하고 있다.<sup>76)</sup>

Calvin은 돈과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그는 聖經의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物質的인 財産이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완성시키는데 使用하는 도구들이라고 가르쳤다. “돈은 이러한 재산을 대표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과 그의 동료들의 生存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인간에게 공급해 주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하나님은 富를 人間의 수중에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生活과 社會生活을 영위해 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더우기 創造主께서는 모든 物質적인 財産 특히 돈을 被造物에게 시여함으로써 자신이 生命을 부여해 주는 아버지이심을 나타내신다. 따라서 돈은 단순히 公利主義的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은 영적 使命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生存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이다. 더우기 돈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約束의 땅의 풍요함이 來世의 풍요한 삶의 前兆이듯이 돈도 내세의 풍요한 삶의 전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돈은 이중적인 意味를 가진 표징이다. 돈은 믿음을 通하여 모든 그의 所有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왔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내린 은총의 표시인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표시인 것이다. 그런데 돈은 하나님의

---

76) R. H. Tawney, *op. cit.*, pp.121-122.

섭리 여하에 따라 어떤 이는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더 적게 가질 수도 있다. 더 부유한 者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經濟的 召命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財産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소유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자가 가난해지지 않게 되고 부유한 자가 부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특히 社會的 삶은 부단한 商品의 交換이요 人間의 相互 補完的 삶과 의무적 연대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命命으로 組織된 社會안에서는 財物의 相互交換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Calvin은 말하였다. 칼빈은 사회내에서의 이같은 富의 相互交換을 매우 강조하였다. 그 한 例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만나의 再分配를 提示하고 있다. 이 再分配는 사도 바울의 表現처럼 “많이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라”는 것과 같이 차등화된 평등(a differentiated equality)을 지향하고 있다(고후 8:15).<sup>77)</sup>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랑의 질서, 이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에 서 심각한 癡妄을 받아왔다. 하나님의 도구였고 다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을 要請받고 있는 돈이 富의 神의 支配下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이 된 돈의 威力을 「mammon」(Mammon)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떠나 허황된 自由를 추구하여 罪와 인간악에 인간이 굴복해 버린 結果이다. 재물의 神은 일단 神의 자리를 찬탈하고 난 뒤엔 인간을 더욱 교묘하게 속이기 위해 人間 自身이 신

---

77) Andre Bieler, *op.cit.*, pp.55-56.

퇴하는 종교를 실행하고 기도를 하도록 충분한 자유를 허용한다. 그는 심지어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을 삶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二元論에 빠지게 하여 자신의 노예가 되게 한다. 즉 하나는 모든 인간들의 헌신이 바쳐져야 하는 영혼의 영역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모든 所有物을 吸入해 들이는 物質의 領域인데, 그는 信仰과 事業, 돈과 종교가 서로 연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하면서 자신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쟁길 수 없다. 즉 두가지 양립할 없는 주인인 하나님과 돈을 同時에 主人으로 쟁길 수 없다는 말이다. 영원한 主任은 ‘金과 銀은 내것이다’고 말씀하셨다. 金과 銀이 主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그것들이 信仰과 예배의 生活속에 뚜렷하게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곧 財物의 神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財物의 神이 人間을 삼키자 人間 個人的 타락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잇달아 社會의 타락이 뒤따르게 되었다. 經濟生活에 많은 방해물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사회적 무질서가 초래되었다. 이기적인 부의 소유, 매점·매석, 독점, 탐욕, 낭비, 방탕, 사치, 경박성 - 이런 것들은 모두 죄의 表現-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화로운 교역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제반 무질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被造物들이 돈을 균등하게 分配하는 일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부유한 주의 위치에서 스스로가 난해지심으로, 그리고 자신이 친히 統治하고 계시는 創造物들을 모든 人類에게 자유롭게 分配하여 주심으로 社會·經濟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구성된 진정한 교회 안

에서 우리는 회복된 사회의 가장 훌륭한 모본을 발견할 수 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존엄성을 회복한 인간은 다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곧 인간이 돈의 役割에 대해 새롭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을 意味한다. 돈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분별되고 이웃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人間이 돈을 征服해야 한다. 개인적인 단계에서 이러한 재발견은 人間에게 엄격한 訓連을 要求한다.” 여기서 Calvin은 매우 독특한 형태의 금욕주의를 창시했다. 중세시대의 공로주의적 금욕주의가 아니라, 자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초래되는 새로운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한 금욕주의를 말한다. 그럼으로써 기독교인은 주님이 그의 삶의 전체의 主人이라는 사실—곧 윤리적 물질적 삶의 주인이심을 告白하는 것이다. 이같은 돈의 기능의 재발견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들 사이에 확립시켜 놓으신 새로운 靈的 連合이 그들의 物品들을 相互 交換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고 Calvin은 말한다. 각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의 분량과 다른 사람의 必要에 따라 영적으로 서로 교통할 때 이같은 物品의 상호교역은 강력하고 적절한 형평을 산출해 내어 아주 훌륭한 조화의 상태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 사회는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회원들 사이에서 이같은 물품을 상호 교환하는 일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칼빈은 집사제도를 새롭게 설립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외부에까지 관심의 폭을 넓혀서 국내인들을 도왔고 사회 의료봉사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國家는 一方이 희생되면서 다른 一方이 재산을 획득하는 일



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재산이 사회전체의 공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어느정도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8)</sup>

이상에서 돈, 경제, 사회에 관한 칼빈의 교리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칼빈의 사상이 그의 선조들과 중세 신학자들의 사상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 신학자들처럼 칼빈도 부가 내포하고 있는 영적 위험을 批判하고 있지만, 信仰생활은 중세적인 態度로 財産을 멀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信仰生活은 신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사회 전체의 物質生活에 대해 全的인 責任을 지는 것을 意味한다. 이처럼 돈을 信仰에 복종시킴으로써 소박하고 엄격한 칼빈주의적 生活態度가 수립될 수 있었다. 이리하여 Calvin은 物質生活을 神學的으로 정당화시키면서 精神과 物質이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했던(M. Luther 마저도 이렇게 이해했다) 고대(古代) 기독교 전통을 깨트렸던 것이다. 기독교가 결코 전통적인 정신과 물질의 대립개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物質生活을 神學的으로 정당화시킨 Calvin의 입장은 淸교도 사회의 경제생활에 큰 충격을 주었고,<sup>79)</sup> 결과적으로 近代 資本의 形成과 資本主義 發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Calvin의 職業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Luther에 의하여 강조된 職業의 召命 概念은 Calvin에 와서 아주 보다 적극적인 世俗的 召命의 概念으로 發展하게 된다. Max Weber가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 資本主義精神」에서 論議하고 있는 대로, Calvin은 그의 독특한 예정론, 하나님께 榮光 돌리는 此世的

---

78) André Biéler, *op.cit.*, pp.61-73.

79) *Ibid.*, pp.74-75.

禁慾主義, 소명의 개념 등이 結合되어 완전히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召命意識과 一般的 職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깊이 종교적 의  
 미를 갖게 되는 경지로까지 發展시킨다. 칼빈은 하나님께만 榮光을 돌  
 리는(Sola Gloria Dei) 生活을 그 目標로 삼았다.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는 生活은 중세 수도원주의를 배경하고 이 세상안에서의 一般的  
 인 世俗的 生活에서 수행되어야 했다. 이것은 Luther와 마찬가지로  
 改新敎의 전통에서 確立된 것이다. 그러나 Luther의 默從主義(Quiet-  
 ism)와는 달리 Calvin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榮光을 나타내는 더  
 나은 職業에도 自由로이 職業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다는 점  
 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sup>80)</sup> 그래서 世俗的인 生活과 職業이 귀  
 중한 宗教的 의미를 갖게 되는 커다란 轉換點이 形成된 것이다. 他  
 界的인 금욕주의 반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속적 生活은  
 Luther 이후에 確立된 새로운 召命의 개념과 함께 努勤과 職業에  
 대한 새로운 基督敎的 理解를 가져오게 되었다. 저주를 받은 努勤이  
 라거나 기껏해야 修道院 生活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급한 성격의  
 日常生活이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정의 確信  
 을 줄 수 있는 根據로 대두함에 따라 일과 努勤에 대한 概念은 전  
 혀 새로운 局面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使徒 Paul의 훈계가 座右銘이 되었으며, 게으름을 피우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엄격히 禁止되었고 심지어는 휴식마저도 내일  
 의 努勤을 위한 준비가 아닐 때는 금지되었다. 勤勉, 正直, 節制 등  
 의 生活哲學이 삶의 목표와 표어가 되었다. 그렇지 못한 生活은 宗

---

80)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56), pp.610-611.

教的 罪로 지탄을 받게 되었다. 일본 일초를 닮아 하나님께 榮光을 돌리는 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宗教的 의심이나 좌절감이나 잘못된 慾望을 방지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 더구나 중요한 事實은 오랜 동안 禁慾主義的 傾向性 때문에 의혹시되어 왔던 物質的 富에 대한 견해가 거의 사라지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祝福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대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하여 初代教會에서부터 中世에 이르기까지 淸貧과 獨身生活과 服從이라는 금욕주의적 理想이 지배해 온 기독교 律理的 傳統이 世俗的이고 物質的이 되어 물질적인 풍요를 正當視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宗教的 意味까지 부여하게 되는 일대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sup>81)</sup> 이러한 그의 職業觀은 必然的으로 財貨를 創出하게 되었고, 이 재화의 획득은 自他가 共認하는 하나님의 祝福으로 인정하게 되어 자본축적과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Calvin은 商行爲와 利潤趣得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中世의 카톨릭교회는 商行爲와 利潤趣得을 否定的으로 보음으로 이를 비난하였다.<sup>82)</sup> 그래서 “物件을 사들일 때 變造없이 다시 그것을 販賣함으로서 利得을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教會를 멀리하는 賣買者들이다”<sup>83)</sup> 라고 神學者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와 中

---

81) 宋德俊, “기독교 직업관에 대한 연구”

82) M. Luther도 中世人들과 같이 商行爲와 利潤趣得에 否定的인 견해를 가졌다는 것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83) M. W. Childs, 經濟倫理, 양興模 譯(서울:乙酉文化社, 1958), p.17.

世紀 經濟生活의 專門家인 안토니누스 (Antoninus) 등은 혹평하기를 主저하지 않았다.

이점에 對하여 칼빈은 金利를 받는 것을 禁止할 것은 中世 經濟生活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하고, 그들은 “돈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格言에 따라 財貨의 非生産性을 널리 되풀이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칼빈은 聖經은 金利를 받는 것이나 장사에서 利得을 보는 것을 禁하지 않고 있다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信者는 오히려 自身の 救援과 兄弟의 有益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받아 이 선물을 사용하여 반드시 富者가 되고 利潤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84)</sup> 칼빈의 이와같은 思想的 影響으로 말미암아 商人들의 社會的 地位는 일취월장하여 높아가고 商人들이 社會의 부속물 만이 아니라 새로운 社會의 불가결한 存在가 되었으며 그들의 活動價値를 根本的으로 再評價 받기에 이르는 것이었다.<sup>85)</sup> 뿐만 아니라 금지를 지닌 信實하고 誠實한 칼빈주의적인 商人의 商業的 活動으로 因하여 經濟的 流通秩序가 確立되어져 갔다. 이 원만한 經濟的 流通은 近代社會의 經濟成長을 促進시키는 活力素가 됨으로서 資本의 形成에 박차를 加했음은 勿論이고 商人들의 商行爲를 通하여 資本形成으로 直結되면서 資本主義 發展에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그가 利潤의 正當성을 主張하였으나, 高利貸金을 묵인하거나 찬양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가 商

---

84) 이 低利子는 經濟活動을 활발하게 하는 要因중의 하나였다.

85) 최문환, 經濟學史(서울:日新社, 1961), p.67.

業活動을 正當한 行爲로 認定하였으나, 惡德 商行爲를 옳다고 까지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칼빈은 財貨의 生産性を 認定하면서 또 金利는 낮게 할 것을 要求하였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利子를 받지 않고 거저 빌려줌으로서 信者들의 事業과 사랑의 實踐行爲가 되는 道德的 行爲를 兼全할 것을 要求하였다. 칼빈은 매점매석등의 行爲를, 남에게 害를 끼치면서 까지 自己 間益을 도모하는 商行爲를, 惡德으로 定罪하고 친히 그가 주재하는 宗教裁判에 依하여 벌을 내린 事實을 보더라도 商業과 利潤趣得이 어디까지나 宗教的 倫理的 次元에서만 正當하다고 主張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86)</sup>

이상에서 우리는 Calvin의 經濟觀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칼빈은 루터와는 달리 資本과 신용 및 은행업, 또는 대규모의 상업 및 금융과 그 밖의 사업을 철저히 인정하는 데서 出發하였고, 精神과 物質이 대립된 것으로 파악했던 중세의 전통을 깨뜨리고 物質生活을 神學的으로 正當화시켰다. 이러한 그의 神學思想의 영향은 近代社會의 資本主義 經濟를 成長시키는 데 커다란 活力素가 되었던 것이다.

---

86) 虛儀一, “칼빈의 教育思想이 서구 近代社會의 資本形成에 미친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4, pp.112-115.

#### IV. 칼빈주의와 자본주의

獨逸의 社會學者 막스 베버(Max Weber)는 그의 著書 「프로테스탄트 倫理와 資本主義 精神」에서 근면, 성실, 검소, 절약 등을 精神的인 德目으로 강조하는 칼빈主義의 倫理的인 側面이 資本主義 成長에 至大하게 공헌하였다는 論旨을 폈다. 이러한 經濟性向의 德目들에 대한 칼빈주의 강조로 말미암아 당시 연약했던 中産階層의 進出이 힘을 얻어 全社會構造를 改革하고 모든 文化권의 구석구석에까지 影響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으로 잘 훈련되고 발전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87)</sup>

Weber는 이 論文에서 「資本主義의 精神」을 近代 서구사회의 特質을 이룬 近代的 産業資本家の 精神에 한정시켜 필요이상의 利潤追求를 마음 속으로부터 排斥시켜 온 전통적인 경제윤리와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 신 중심적인 Protestantism이 부 중심적인 자본주의의 형성에 대하여 어떻게 影響을 끼칠 수가 있었는가? 이에 대하여 Weber는 Protestantism의 윤리에 특유한 직업(Beruf)이라고 하는 관념에서 그 積極적 回答를 찾았던 것이다. 직업을 의미하는 독일어의 Beruf, 영어의 Calling이라는 말은 종교적인—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는—관념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 직업관념이야말로 윤리적 전환을 수행케 한 결정적 계기였다고 한다.

이 積極的인 職業觀念은 루터의 성서번역에서 由來되었는데<sup>88)</sup> 이

---

87) 김의환, 「福音과 歷史」(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p.198.

88) 사실 이 單語의 오늘날의 意味는 성서의 번역에서 유래한 것이며, 또한 이것

事實은 偶然한 것이 아니라 宗教改革의 필연적 産物이었다. 루터는 「오직 믿음만」의 敎理를 가지고 Roman Catholic 敎의 律法主義를 打破하였으며 神父나 修道士生活이 平信徒의 그것보다 좋은 職業이라는 종래의 觀念을 猛烈히 反對하였다. 神父나 修道士의 生活은 義認을 받는 데는 전연 無價値한 것이고 단지 세속의 의무로부터 도피하는 利己主義의 産物에 不過한 것이다. 神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修道院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環境에 있든지 世俗的 職業을 充實히 遂行하는데 있다고 루터는 主張하였다. 즉 세속내적 義務를 遂行하는 것만이 神의 意志(The Will of God)에 服從하는 것이며 따라서 許容된 모든 職業은 神 앞에서는 同一한 價値를 갖는다는 것이다.

Weber는 世俗的 職業生活에 대한 이러한 루터의 觀念이 後代에 커다란 影響을 끼친 것은 의심할 바 없지만, 루터와 資本主義精神과의 內面的 關聯性은 없다고 말하고<sup>89)</sup> 그 理由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宗教改革運動 初期에 루터는 職業을 주로 被造物的인 것(flesh, Kreatürlich)으로 보았기 때문에 世俗內的 職業의 種類에 대해서는 使徒 바울의 終末觀的 無關心(Pauline Eschatological indifference)과 거의 同一한 見解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故로 그는 짧은 人生의 巡禮途上에서 職業의 種類를 重視하는 것은 無意味한 일이라고 생각하

---

은 原文 精神이 아닌 번역자의 정신에서 由來한 것이다. Luther는 구약성서 외전중의 하나인 Jesus Sirach에 나오는 한 구절(11장 20절, 21절)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소명관념으로서의 Beruf를 最初로 使用하였다. M.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by T. Parson), (New York; 1956), p. 79.

89) Max Weber, *op.cit.*, p. 82.

었다. 그 後 루터가 現世 투쟁에 빈번히 참여하게 됨에 따라 職業 勞動을 점점 중시하게 되었으나 熱狂主義者와 農民폭동에 대한 抗爭이 있는 後에는 攝理思想(the idea of Providence)에 相應하는 전통주의적 경제관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sup>90)</sup> 이 전통주의적 職業觀念으로 因하여 루터가 가지고 있는 다른 思想 즉 職業勞動은 神으로부터 부여받은 唯一無二한 使命이라고 하는 思想은 약화되고 말았다. 結局 Weber의 主張에 依하면 루터는 世俗內的 職業勞動에 대한 道德的 重視 乃至 종교적 장려(religious saction)를 하여 一般 職業을 強調는 하였지만 表現形態로서의 職業觀念이 不徹底했는데 Calvin이 이 職業觀念을 繼承하여 近代的인 職業觀念으로 完成시켰다는 것이다.

Calvin에 있어서의 職業觀念은 그의 예정사상에 기초하여 지극히 積極적이고 徹底한 實味를 가지게 되었다. 現世에 있어서의 Calvinist의 社會的 活動은 다만 神의 榮光만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地上生活을 위한 職業勞動(labour in a Calling)도 그것과 同一한 性質을 갖는 것이다.<sup>91)</sup> Calvinism에 의하면 크리스찬은 人間을 유혹하는 악마와 싸우기 위하여 日常生活을 組織的으로 合理化하고 하나님께 榮光을 돌리기 위하여 世上의 享樂을 完全히 버리고 職業勞動에 專心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 貨幣獲得의 手段인 職業勞動을 통하여 神으로부터 받은 은총의 증거를 확실하게 하고 非合理的인 官能의 충동을 억제하며 노동가운데서 信仰을 純化해야 한다

90) M. Weber, *op.cit.*, p.85.

91) M. Weber, *op.cit.*, p.108.



는 것이다.<sup>92)</sup> 이로써 Calvin은 近代的인 禁慾的 職業觀念을 完成하였으며, 그것은 中世的인 經濟的 傳統主義思想과 對決하여 經濟倫理의 刷新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近代의 生産力을 높이게 하였고 民衆의 富를 축적시켜 資本의 形成을 促進하였다는 것이다. 즉 Weber의 주장에 의하면 한 個人的 職業에서의 成功이 곧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이며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重生과 참된 信仰과 選擇의 증거로써 해석되었다는 사실이다. 더우기 商業에 있어서의 성공은 利潤의 증대라는 개념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고, “한 때는 信仰의 敵으로 간주되었던 富의 追求가 이제는 信仰과 제휴할 수 있는 것으로 환영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세의 변화는 편한 마음으로 금전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게 된 것이다. 이 結果 Calvinism은 近代의 産業力을 높이게 하였고 民衆의 富를 축적시켜 資本의 形成을 促進케 하였다고 Weber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獨逸의 歷史家이며 神學者인 E. Troeltsch도 이 問題에 대하여 약간 다른 각도에서 考察하고 環境的인 要素를 強調하였으나 Protestantism, 특히 Calvinism이 近代資本主義精神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見解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는 Luther와 Calvin의 財物觀이 根本的으로는 같은 反富精神(Anti Mammon Spirit)이었으나 Calvin의 經濟倫理가 發展의 方向으로 表現된 것은 當時 Geneva의 諸狀況으로 決定된 것이라고 하였다.<sup>93)</sup> 그리고 Troeltsch는 Luther와 C-

92) *Ibid.*, pp.111-128.

93) Ernst Troeltsch, *The Economic ethic of Calvinism* (Robert W. Green 편,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Boston : D. C. Heath and Company, 1959 에 수록), pp.21-22.

alvin이 금전, 노동, 절약등등의 經濟觀이 같았는데도 Calvin만이 資本主義의 成長에 기여하고 루터는 그렇지 못하였던 것은 그들의 經濟問題에 대한 關心의 差異에 起因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94)</sup>

그러나 獨逸의 經濟學者 Werner Sombart는 前述한 두 學者와는 正反對로 Protestantism은 資本主義의 敵이었으며, 資本主義의는 改革 敎理가 전파되는 만큼 그에 比例하여 被害를 입었다고 主張하였다. 루터는 自給自足하는 農民과 手工業者로 構成된 中世初期의 經濟狀態에 愛着心を 가졌으므로 Lutheranism이 우세하게 된 地方은 資本主義의 傾向이 沮害를 받게 되었고 Calvinism도 이 點에서는 다를 바가 없었다. 즉 Calvinism을 신봉하는 地方에서도 敎會는 分明히 資本主義에 敵對的이었고 新信仰(the New faith)은 資本主義精神의 成長에 도움을 주었다기 보다는 全般的으로 害를 끼쳤다고 그는 主張하였다.<sup>95)</sup>

英國의 經濟學者 토오니(R. H. Tawney)는 Max Weber의 論旨를 연구한 후에 칼빈主義의 經濟적인 측면에서의 意義를 설명하기 위한 지나친 욕심으로 이를 획일적으로 公式化, 單純化시켰다고 批判하면서, 자본주의 발전에 칼빈主義 외에 여러 經濟조직과 社會구조의 다양한 영향들이 작용했다고 주장하였다. 토니는 베버의 論旨에 대해,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여러 要因들의 산물인 현상을 하나의 單純한 원리로 설명하고자 새로운 概念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모든 문들을

---

94) *Ibid.*, p.24.

95) Werner Sombart, *The Role of Religion in the Formation of the Capitalist Spirit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p.34.

열 수 있는 열쇠라고 유혹한 것에 불과하다.”<sup>96)</sup> 고 評하였다. “企  
 業成長에 이바지하며 諸般 經濟 領域에서 개인주의적 태도를 일으킨,  
 그러나 종교와는 無關한(칼빈주의 이외의) 知的 運動들에 대해서 베  
 버가 무시하였거나 적어도 소홀히 다루었다.” 고 베버를 비평하면서, 베  
 버의 지나친 單純化에 反對하여 토오니는 作用의 兩面性과 動因의 多  
 樣性을 주장한다. “베버의 理論에 따른다면 도대체 資本家の 企業精  
 神이란 종교적인 변혁이 일어나 자본주의 정신을 산출해 내기 전에  
 는 전혀 없었던 말인가? 좀 인위적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가? 또  
 한 종교적인 변혁이 경제적인 운동의 산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지나친 評이 아닌가? 둘 다 一面的이 아  
 닌까”<sup>97)</sup> 고 토오니는 반문한다. 토오니는 자본주의 精神을 배태하는  
 데 있어서 칼빈主義 외에 여러 經濟組織과 사회구조의 다양한 영향  
 들이 칼빈主義 못지 않게 작용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sup>98)</sup> 그는 또한 이런 상호 영향의 關係를 두 動因, 즉 作用  
 과 反作用이라는 形式으로 생각한다. 즉, 칼빈主義가 새로운 사회체제  
 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기도 하였지만, 한편 사회체제로부터 영향도 받  
 았다는 것이다.<sup>99)</sup> 베버는 이러한 動因의 相互作用性에 대해 정당한 주  
 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지나친 단순화의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베버의 견해는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

96) R. H. Tawney, *op.cit.*, p.12.

97) R. H. Tawney, *op.cit.*, p.12-13.

98) *Ibid.*, p.12-13.

99) *Ibid.*, p.15.

의 文學에 기초하였다.<sup>100)</sup> 백스터의 論述을 살펴보면 現代의 資本主義는 칼빈主義에서 생겨난 것이거나 혹은 칼빈主義를 영국적 상황에 적용한 17세기 퓨리타니즘의 産物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세적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無責任한 速斷이요, 虛構였음을 알 수 있다.<sup>101)</sup>

하크니스(Georgia Harkness) 교수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資本主義는 칼빈시대 이전에 벌써 그 形態로나 精神에 있어서나 존재하여 왔었다…… 宗教나 信仰의 조류 밖에 있던 여러 경제적인 原理들은 종교개혁 이전에 있어서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成長에 공헌하여 왔다. 자본주의 정신은 이미 15세기에 베니스, 플로렌스, 남부 독일, 그리고 폴란드 등지에서 이 지방들이 카톨릭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곳이지만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sup>102)</sup>

伊太利의 經濟史家이며 政治家인 A. Fanfani 도 資本主義는 이미 宗教改革 以前에 있었고 Protestantism은 資本主義에 別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하였다.<sup>103)</sup>

이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프로테스탄티즘, 그 중에서도 특히 청교주의가 “자본주의 정신”형성에 매우 결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따라서 資本主義 그 자체의 형성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Max

---

100) R. H. Tawney도 베버와 마찬가지로 Richard Baxter의 영향을 받았다.

101) 김의환, *op.cit.*, p.204.

102) G. Harkness, John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New York: Abingdon Press, 1931), p.187.

103) Amintore Fanfani, Catholicism,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 (Robert W. Green 편,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pp.87-91.

Weber의 주장은 H. M Robertson의 주장과 같이<sup>104)</sup>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크니스 교수의 말대로 자본주의는 칼빈시대 이전에도 그 形態로나 精神에 있어서나 존재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전과 이익의 획득, 신용, 이윤을 얻기 위한 사업에 있어서의 절제와 청렴 따위를 대단히 중요시하며, 또한 시간이나 금전의 낭비를 혐오하는 태도—이것은 확실히 중세기 사람들에게는 理解될 수 없는 것이었다—등을 강조했던 칼빈주의는 資本主義 發展을 북돋아 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겠다.

---

104) H. M. Robertson, A Criticism of Max Weber and His School (R. W. Green 편, Protestantism and Capitalism에 수록), pp.65-86.

## V. 결 론

以上으로 우리는 宗教改革者들이 資本主義 發展에 미친 景響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宗教改革이 유럽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6세기 유럽의 社會的 狀況에 대해서 考察하였다. 당시 社會는 중세時代를 支配하여 왔던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있었고, 都市經濟, 즉 화폐경제의 發展과 함께 새로 대두한 新興 商業資本主義가 그 위력을 과시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商業資本主義가 그 위력을 과시하던 이 때에 社會는 점차 金力을 가진 자들의 手中에서 움직여지게 되었고, 교황청도 세속주의에 물들기 시작하여 교직매매와 면죄부 판매라는 엄청난 타악의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 M. Luther가 宗教改革의 봉화를 높이 들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16세기 유럽의 社會的 狀況을 살펴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資本主義 결코 종교개혁의 産物이 아니라는 것이다. “資本主義는 宗教改革보다도 수세기나 앞서 출현한 것이 분명하다”<sup>105)</sup> 고 말한 L. W. Spitz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商業的 資本主義는 12세기 이후에 유럽의 촌락, 도시 등에서 發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資本主義가 Calvin 혹은 칼빈주의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主張은 옳지 못하다 하겠다.

그러면 宗教改革者들은 資本主義 發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M. Luther는 당시 中世의 封建制度가 붕괴하고 新興資本主義가 成長해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中世

---

105) L. W. Spitz, *op. cit.*, p. 451.

의 牧歌的 田園社會를 理想으로 하였기 때문에 商業과 자본주의를 혐오하고 배척해 버렸다. 따라서 M. Luther 는 오히려 資本主義 發展에 否定的인 영향을 미치고 말았다. 그러나 Luther 는 日常生活의 神性を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職業的 召命感(Beruf, Vocation)은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諸國에서 資本主義 發展에 기여하였다.

Calvin 은 Luther 와 달리 資本과 신용 및 은행업, 또는 대규모의 商業 및 金融과 그 밖의 사업을 철저히 인정하는 데서 出發하였고, 精神과 物質이 대립된 것으로 파악했던 중세의 전통을 깨뜨리고 物質生活을 神學的으로 정당화시킴으로 近代社會의 資本主義 發展에 活力素가 되었던 것이다.

막스 웨버(Max Weber)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精神」(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이라는 論文을 발표한 후부터 과연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 특히 칼빈주의가 現代 資本主義의 생성과 발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Weber 는 근면, 誠實, 검소, 節約등을 정신적인 德目으로 강조하는 칼빈主義의 倫理的인 側面이 資本主義 成長에 至大한 공헌을 하였다는 論旨을 폈으나, 지난 150年間을 살펴볼 때 칼빈주의가 구미제국의 문화적 경제적 생활에 균림해 오지 못한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칼빈主義가 現代 資本主義를 創出했다는 베버의 주장을 지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주의, 특히 칼빈主義는 근로 계급에게 노동을 하나의 마지못해 하는 단조로운 作業이 아니라, 긍지와 자존심을 産出하는 原泉으로서 규정하는 人生觀을 심어줌으로서 일단의 生産的이고 믿음직한 人物들을 산출하였으니, 이들이야말로 資本主義 社會를 이루는 튼튼한 토대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sup>106)</sup>

106) L. W. Spitz, *op.cit.*, p.454.

## 참 고 문 헌

- André Bié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홍치모역, 「칼빈의 경제 윤리」, 서울 : 성광문화사, 1985.
- Baiton, Roland H. *The Age of the Reformation*. Princeton : D Van Nostrand Company, 1956.
- Cairns, Earle E.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 :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Michigan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1.
- Green, Robert W.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 The Weber Thesis and Its Critics*. Boston : D. C. Heath and Company, 1959.
- Grimm, Harold J. *The Reformation Era 1500-1650*.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73.
- Harkness, Georgia. *John Calvin : The Man and His Ethics*. New York : Abingdon Press, 1931.
- Jensen, De Lamar. *Reformation Europe*. Lexington : D. C. Heath and Company, 1981.
- Kuiper, B. K. *The Church in History*. 김해연역, 「세계기독교회사」, 서울 : 성광문화사, 1985.
- Lattourette, K. S. *A History of Christianity Vol. 2*. 윤두혁역, 「기독교사」,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0.
- McNeill, John T.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Lond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Porter, J. M. *Luther : Selected Political Writings*. 홍치모역, 「루터



- 의 정치사상」, 서울 : 컨콜디아사, 1985.
- Reid, W. Stanford. *John Calvin :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Michigan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2.
- \_\_\_\_\_ . *John Calvin : the father of Capitalism?* themelios, 1983. 1.
-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 Michigan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4.
- Spitz, Lewis W. *The Reformation*. 서영일역, 「宗教改革史」,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 Tawney, R. H.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이경식역, 「기독교와 자본주의」, 서울 : 전망사, 1983.
- Troeltsch, Ernst.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56.
- Walzes, Michael. *Revolution of the Saints : A Study in the Origins of radical Politics*. Cambridge and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70.
- Weber, Max.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권세원, 강명규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 일조각, 1987.
- Whitney, James Pounder.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London : S. P. C. K., 1958.

- 金義換, 「福音과 歷史」 서울: 基督教文書宣教會, 1983.
- 李享基, 「宗教改革 神學思想」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4.
- 李英俠, 「一般經濟史要論」 서울: 普文閣, 1978.
- 趙璣濬, 「社會經濟史」 서울: 一新社, 1987.
- 최문환, 「近世社會思想史」 서울: 三英社, 1983.
- \_\_\_\_\_外, 「經濟史」 서울: 박영사, 1980.
- 洪致模, 「宗教改革史」 서울: 聖光文化史, 1979.
- 宋德俊, “基督教 職業觀에 對한 研究”
- 李大燮, “Lutheranism의 成立過程과 그 社會的 性格” 고려대학원 석사학위 論文, 1964.
- 지인성, “16세기 宗教改革 社會的 背景에 관한 研究” 한신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盧儀一, “칼빈의 教育思想이 서구 近代社會의 資本形成에 미친 影響”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4.